

“폐자원 재활용… 도시광산 개발해야”

■ 국회서 ‘도시광산업 육성 세미나’

휴대폰·가전·자동차 등 年 4조 버려져

“차·가전 폐카 광주, 기술연구원 최적지”

“휴대폰·가전·자동차 등 다 쓴 뒤 버려지는 폐자원이 33조원에 달한다.” “폐자원을 산업화해 환경오염을 줄이고,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도시광산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 자원의 무기화, 심각해지는 환경오염 등으로 당위성이 더 커지고 있다.

14일 서울 국회의회관에서 열린 ‘도시광산업 육성 정책 세미나’에서 강운태 광주시장은 “자동차·가전제품 생산 메카이고 R&D 특구로 지정돼 연구인력이 풍부한 광주가 도시광

산업 육성 최적지”라며 “광주에 도시광산 기술원을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왜 도시광산인가=우리나라는 휴대폰·가전·자동차·반도체의 주요 생산국이자 소비국이다.

제품생산에 꼭 필요한 희소금속의 수입은 갈수록 증가하고, 소비가 늘면서 폐휴대폰 등 폐제품들도 쏟아지고 있다. 도시광산 개발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다.

도시광산은 폐가전제품·산업폐기물 등에 축적된 금속자원 중 재활용 과정을 거쳐 자원화할 수 있는 금속

또는 관련 산업을 말한다. TV·휴대폰·자동차 등 일상생활에 사용되는 제품 속에 들어있는 부품이 자원이란 얘기다.

금광석 1t에서 금 5g를 채취하는 데 비해 휴대폰 1t에서는 금 400g, 은 3kg, 구리 131kg 등을 추출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국내 도시광산자원의 경제적 가치를 약 46조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매년 4조원의 폐금속 자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폐제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중금속 유해물질과 온실가스 등이 나오는 데 재활용시스템을 통해 이를 획기적

으로 줄일 수 있다. 그만큼 개발 가치가 큰 녹색산업이다.

김준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연구원은 “국내 도시광산 내 희소금속은 자동차에 집중돼 있고 그 규모는 8만 2000t, 1조 8000억원에 달한다”며 “2020년이면 친환경차 비중이 커지고 스마트폰 등 소형디지털기기 수요

가 증가해 도시광산 내 희소금속 잠재 가치는 최소 33조원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광주 최적지=광주지역은 도시광산 내 희소금속이 집중돼 있는 자동차와 가전의 생산 메카다.

또 광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한 경험과 광주과학기술원·광주테크노파크 등에 포진한 풍부한 고급인력 등 연구인프라도 갖춰져 있다.

광양제철소 제련 기술과 여수산단의 석유화학산업, 대불산단의 조선산업 등 배후 연관산업도 든든하다.

광주는 도시광산 자원의 활용 산업이 발달해 있고, 회수·분리·추출·재자원화·재활용의 체계가 구축된 도시광산 개발의 최적지라는 것이다.

김동철 의원(광주 광산갑)은 “도시광산기술원은 광주에서 최초로 제안한 사업으로 반드시 광주에 설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숙기자 jwpark@kwangju.co.kr



장갑 끼고 스마트폰 터치~

(주)광주신세계 2층 메트로시티 매장에서는 장갑을 끼고도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는 헤팩 장갑을 출시했다. 헤팩장갑은 전도 기능을 가진 소재를 장갑에 적용하여 정전식 터치 스크린을 장갑 착용상태에서 편하게 터치 할 수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삼성에 상용차 생산 허용

광주권 지역경제 운동사 <32>

아시아자동차공장 유치운동 ⑧

정부와 유착 의혹… 대대적 항의단 상경

▲이문환은 선각자인가? 시기꾼 인가?

광복 후 이문환이라는 지역기업인에 의해 부실에 이은 막이 반복되면서 도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주었다.

이문환 사장은 두 공장 모두 똑같은 방법으로 유치추진위와 행정기관 및 유관단체의 후원을 이끌어 냈다. 그리고 비료공급의 우선권을 앞세운 호남비료나 자녀들 취업을 앞세운 아시아자동차나 똑같은 방법으로 영세농가까지 출자를 유도했고 지주의 공장부지를 헐값으로 차지했다.

그러나 아시아자동차가 1990년 대 들어서면서부터 흔들리기 시작했다. 주력제품 중의 하나인 대형 상용차가 공급과잉으로 재고가 누적되며 시장에서 판매되면서 끝내 매각의 수순을 밟았다.

▲주력제품 상용차 불황에 조업 중단

아시아자동차를 인수한 기아산업은 1944년 자전거 부품 생산공장으로 출발하여 1952년 한국 최초의 국산 자전거인 3000리호 자전거와 1962년 “말딸이”라고 애칭되었던 소형 3륜화물차를 생산한

틀어 3만여명의 고용효과와 연간 9천7백억원의 매출액을 올리는 아시아자동차의 이같은 불황은 무엇보다도 지역경제에 짙은 그늘을 드리우게 되었다.

▲삼성 신규참여에 의혹의 눈길
이러한 판국에 국내 자동차 업계에는 해괴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었다. 상용차가 남아돌아 조업이 중단되고 있는 티에 삼성증공이 일본의 낫산디젤과 기술협약을 맺고 1992년 6월 23일 대형 상용차 생산을 위한 기술도입 신고서를 제출한 것이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삼성의 이같은 자동차업계 신규참여를 정부가 긍정적으로 고려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당시 고제철(高濟哲) 광주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러한 상황을 광주권 경제의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광주지의회와 공동으로 견의단을 구성, 청와대와 경제기획원, 상공부, 민자당을 상대로 대대적인 삼성의 신규참여 반대를 호소했다. 그러나 문민정부는 아시아, 대우, 쌍용 등 기존업체의 멸렬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1992년 7월 4일 삼성증공의 상용차 기술도입 및 생산을 승인하고 말았다.



위 증
(언론인)

고속도로 미납통행료
편의점서도 납부 가능

앞으로 고속도로 미납통행료를 전국 편의점에서 납부할 수 있게 됐다.

한국도로공사는 15일부터 전국 편의점에서 ‘고속도로 미납통행료 수납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미납통행료 납부가 가능한 편의점은 GS25, 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 CU, 미니스톱 등 5개 편의점 2만837개 점포이다. 도로공사에서 발급한 QR코드가 기록된 고지서를 가져가 현금이나 현금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미납 통행료는 공사 홈페이지(www.ex.co.kr)나 하이패스 홈페이지(www.excard.co.kr)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콜센터(1588-2504)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연합뉴스

모바일 쇼핑객 1000만 돌파

스마트폰·태블릿 PC 등 모바일 기기는 이용한 쇼핑객 수가 1000만명을 넘어섰다.

14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최근 랭킹닷컴과 공동으로 1만8900여 개 온라인쇼핑몰 방문 동향을 분석한 결과 올 9월 평균 모바일 쇼핑앱 이용자 수가 1033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처음 집계한 올 4월(462만명)보다 123% 증가한 수치다. /연합뉴스

현금카드로 식당·마트서 결제

금감원 21일부터

드 결제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사용 대상은 신세계백화점 전점

(총점점 제외)과 전국의 모든 이마트,

이마트에브리데이 점포다.

기업·국민·외환·수협·농협·우리·신한·SC·하나·대구·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은행 등 15개 은행의 현금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일반 카드가맹점이 이 서비스에 참여하면서 거래은행 또는 벤(VAN)사를 통해 현금카드 가맹점 신청을 해

야 한다. 현금카드 이용이 가능한 단말기도 갖춰야 한다.

현금카드로 결제하면 연말점검 때 소득공제 혜택이 사용액의 30%를 기준으로 하므로 신용카드(20%)보다 높다. 가맹점으로선 수수료가 신용카드의 절반 이하인 1% 내외에 그쳐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금융결제원은 15개 은행 이외의 다른 금융기관과도 협의해 현금카드 결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대형유통업체 불공정행위 심각”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 “상생의 인식전환 필요”

세계 100대 유통기업에 꼽힐 정도로 급성장했지만, 생산자와 소비자를 효율적으로 연결해 주는 유통 본연의 기능 강화 등 내실을 다지는 데는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국내 유통업체 중 롯데쇼핑은 매출액 기준 세계 79위, 신세계는 82위를 차지한다.

이제는 유통산업이 규모 중심의 양

적 성장단계를 넘어 질적 발전단계로 접어들기 위한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김 위원장은 제언했다.

김 위원장은 “대형 유통업체들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중소 협력업체들의 혁신과 성장을 저해하는 각종 불공정행위를 스스로 시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유통구조 개선과 효율성 확보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함께 성장한다는 인식 전환과 문화 확립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화 / 제 / 집 / 중 / 한 / 손 / 에 / 잡 / 히 / 는 / 대 / 능 / 한 / 자 / 외 / 국 / 어

대한민국 대표 한자 외국어 SERIES

DAENEUNG's Best Seller



한권으로 해결하는 외국어 도서의 최강자

한국교육만의 노하우가 담긴 포켓북 시리즈는 학습하는 데 꼭 필요한 내용들만 골라 담아 보다 쉽게 이해하고,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교재입니다.



* 주제별 단어장 * 시리즈 외국인 감수 각권 6,000원

* 알짜배기 여행화이트 시리즈 외국인 감수 각권 7,000원

* 알짜배기 여행화이트 시리즈
■ 상황별 핵심 문법과 활용단어로 구성
■ 여행지의 다양한 정보를 한눈에~



* 진급승부 한자능력검정 시리즈 대능한자연구회

* 진급승부 한자능력검정 시리즈
■ 급수별 한자색인, 다양한 활용단어 수록
■ 예상문제를 통한 기출문제의 성향, 학습성취도 평가

* 수험생을 위한 맞춤 고사성어백과

내신·입시·한자능력검정시험 및 국가적 기출문제 평가
알짜배기 고사성어백과 값 8,500원